



## 조직·사람·인프라... 당신은 어디에 기부하시겠습니까?

### 필란트로피가이드

#### 고액기부자들이 주목하는 '기반조성기부'

한국에서 가장 기부 받기 어려운 '3대 영역'이 있다. 첫째 조직에 대한 기부, 둘째 사람에 대한 기부, 마지막으로 인프라에 대한 기부다. 이 셋을 다 했던 사람이 있다. 경남 진주의 시민활동가이자 자선가 김장하(81) 선생이다.

김장하 선생은 시민단체, 환경단체, 지역 언론, 극단, 복지기관 등 풀뿌리 단체에 수십 년간 꾸준히 기부금을 전달했다. 돈의 사용처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운영비, 인건비, 임대료 등 단체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기부금을 쓸 수 있게 했다. 자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계약 없는 기부'를 일찌감치 실천한 셈이다.

비영리 조직, 사람, 인프라 등에 기부하는 것을 '기반조성기부(Base-Building Support)'라고 부른다. 비영리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기부를 뜻한다. 방대옥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기반조성기부가 최근 국내 재단과 고액 기부자들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역행하는 기부자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인재를 채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드는 비용 ▶사무 공간이나 설비,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비용 등이 기반조성기부에 포함된다. 단체가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지만, 기부에 따른 성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기부'라고 불린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조직, 사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기부의 필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소외된 분야였다. 개별 프로젝트나 사업을 지원하는 기부금은 있어도 조직이나 사람을 지원하는 기부금은 거의 없었다. 또 사업에는 기부를 하면서도 그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의 운영비나 인건비로 예산이 쓰이는 건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한국의 기부문화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기부자들이 최근 들어 생겨나고 있다. 3대 기피 영역으로 불렸던 조직·사람·인프라만 딱 집어 지원하는 기부자들이 등장했다.

김강석 블루홀(크라프론) 공동창업자는 지난

달 다음세대재단과 '임팩트 비기닝 블루' 기금을 조성했다. 시작 단계의 비영리조직들이 과감하게 상상하고 임팩트에 몰입할 수 있게 최소 2000만원씩의 지원금과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금 출연자인 김강석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 지원으로 설계한 게 특징이다. 전형적인 기반조성기부 사례다. 김강석 기부자는 앞서 2022년에는 소규모 비영리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IP1 기금'을 36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도 했다. 단체가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 전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재산 기부로 설립된 공익재단 브라이언임팩트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가들을 선정해 월 300만원씩 최대 4년간 지원금을 주는 '브라이언펠로우'를 운영 중이다. 김범수는 '한 사람의 혁신가가 세상을 바꾼다'는 철학으로 사람에게 집중하는 기부를 하고 있다.

김강석과 김범수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 없는' 기부금이다.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사업비 등 기부를 받는 쪽에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 방대옥 대표는 "한국의 많

은 비영리 창업가가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감과 비전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지만, 단기적이고 보수적인 기부 문화로 한계에 부딪히곤 했다"면서 "조직·사람·인프라에 대한 이 같은 기부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부와 투자 사이

김장하 선생의 기부는 '주고 잊어버리는' 기부다. 기부의 효과가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믿고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기다려 준다. 흥미로운 건 이런 방식이 기부보다 '투자'의 성질에 가깝다는 것이다. 성공을 확인할 순 없지만, 공동체의 변화 가능성을 생각하며 과감하게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김강석과 김범수가 하는 기반조성기부도 기부와 투자 사이에 있다. 비영리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전통적인 기부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Low Risk, Low Return)'이다. 예측할 수 있고 실패 확률은 낮지만, 성과도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 3면 '기반조성기부'로 계속



##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파이워크 '한국의 기부자'를 소개합니다

### 파이워크 '더기버스50' 선정 비영리단체 23곳서 기부자 추천

더버터는 일상의 기부를 실천하는 '한국의 기부자들: The Givers 50'(이하 더기버스50)을 선정해 공개했다. 더기버스50은 민간 주도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파이워크'의 일환으로 유명 인사나 초고액 기부자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기부를 실천해 온 시민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버터는 기부자 50인 가운데 10명을 우선 공개했다. 강동욱·김명기·김윤미·김용기·김정은·안금옥·우한곤·이원우·이주희·정샘물이다. 나머지 40인은 순차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더기버스50 선정은 올해 파이워크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 23곳의 추천을 받아 별도의 선정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파이워크 참여단체는 국제구조위원회, 굿네이버스, 굿피플, 기아대책, 대한사회복지회, 밀알복지재단, 바보의나눔, 부스르기사랑나눔회, 사랑의달팽이, 세이브더칠드런, 열매나눔재단,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초록우산, 컨선월드와이드, 케이와이케이파운데이션, 플랜인터내셔널코리아, 한국컴패션, 한국해비타트, 함께일하는재단, 함께하는사랑밭, 홀트아동복지회 등이다.

선정 기준은 ▶지속성 ▶태도 ▶기부스토리 ▶파급력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단발성보다 꾸준한 기부를 중요하게 봤다. 기부 금액은 크지 않아도 된다. 기부하게 된 계기와 마음을 중

점적으로 살폈고, 개인의 삶과 기부가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이 이번 선정에 크게 영향을 줬다. 기부자의 실천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도 선정 기준에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정에는 연령, 직업, 지역, 기부 분야 등의 다양성을 고려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기부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기부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더기버스50에 선정된 기부자들의 이야기는 파이워크 캠페인 홈페이지(pieweek.thebutter.org)와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 지면을 통해 연말까지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문일요·최지은 더버터 기자

▶ 8면 '더기버스50'으로 계속

### Inside

기아종식의 가장 큰 걸림돌은 '편견'	C2
비영리단체 19곳, 새정부에 바란다	C3
가족 돌봄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제안	C4
아이들의 죽음, 어떻게 막을 것인가	C5
국내 아동지원 30년, 한병수·김은희 후원자	C6
시니어 삶을 바꾼 디지털 포용 교육	C7
더버터 스페셜: 더기버스50	C8

###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The Butter)

- 취재팀 : 김시원 편집장, 문일요 취재팀장, 최지은·박선하 기자
- 공익사업팀 : 이영은 매니저, 박찬주 인턴
- 문의 및 제보 : hello@thebutter.org, 02-3789-7861

# “기아종식의 가장 큰 걸림돌은 ‘편견’입니다”

## 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대표 인터뷰

“한국을 도와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1961년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발간한 보고서에 적힌 문장이다.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기아(굶주림)에 시달리던 한국을 돕기 위해 미국은 막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을 쏟아부었다. 보고서에는 대규모 원조에도 개선되지 않는 한국의 기아 문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담겼다.

“결과적으로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보였을 거예요.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의지가 없고 게으르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7일 만난 이준모(50)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대표가 웃으며 말했다.

아일랜드에 본부를 둔 컨선월드와이드(이하 컨선)는 기아 문제에 집중하는 국제인도주의 전문기관이다. 남수단·소말리아·에티오피아·예멘 등 컨선이 지원하는 나라 대부분 전후 한국과 닮았다. 이준모 대표는 “한국이 원조를 기반으로 자립해 선진국이 된 것처럼 이 나라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서 “기아에 대한 오해와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일어서려고 애쓰는 사람들

-어떤 오해가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기아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아가 발생하는 구조나 원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아를 돕는다’는 게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기아나 빈곤이 개인의 능력이거나 게으름 때문이라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나태해서 가난해진 게 아니라 사회 환경적 요인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케냐의 투르카나라는 지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다섯 번의 우기가 비 한 방울 없이 지나가 버린 곳이었어요. 가축도 다 말라 죽었죠. 수단과 예멘처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굶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누워 있는 사람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



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대표는 “기아종식이란 궁극적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합니다. 그 사람들,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조금만 손잡아 주고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국제사회가 노력한 끝에 빈곤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고 들었어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기아가 급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죠. 2000년 ‘심각’ 수준이던 세계기아지수가 2016년 ‘보통’ 수준으로 내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분쟁이 심화되면서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기아 상황이 다시 ‘심각’ 수준에 빠졌어요. 이 와중에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국제개발처를 폐쇄하면서 구호개발 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기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급성’ 기아와 ‘만성적’ 기아. 급성 기아는 갑작스러운 식량 부족으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지진·홍수 등이 원인일 수 있죠. 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장기화되는 것을 만성적 기아라고 합니다. 만성

적 기아는 ‘개발협력’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게 중요해요.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

-컨선의 사업 중에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컨선이 케냐 나이로비 비공식정착촌에서 진행한 영양간식 사업이 좋은 케이스죠. 이곳에 거주하는 아동의 3분의 1이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어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영양가 높은 ‘길거리 음식’을 개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케냐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커톤을 열어 가격 대비 영양이 풍부한 반죽을 개발했어요. 이 반죽을 현지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길거리 음식 ‘차파티’로 만들어 노점상에 공급해 주민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했죠.”

-재밌는 사업이네요.

“에티오피아에서도 여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극빈층 여성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만난 아베라시(가명)라는 여성이 기억에 남아요. 보통은 빌린 돈으로 닭을 사고, 새끼 염소

를 사고, 소를 사는 식으로 돈을 불리는데 아베라시는 소 대신에 발전기를 샀습니다. 쓰고 남은 전기를 이웃에 팔아 수익을 창출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기아에 처한 사람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중요한 지점을 얘기해 주셨어요. ‘셀프 헬프(Self-help)’라고 하죠.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컨선이 ‘수혜자’라는 말 대신 ‘참여자’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컨선월드와이드 한국사무소가 설립된 게 언제인가요.

“2015년에 설립해 올해 10주년이 됐어요.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기아종식’이라는 메시지를 한국 사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죠.”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7억 3300명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 세계 인구 11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숫자다. 아프리카에서는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 상태다.

“굶주림은 사람을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만듭니다. 기아를 단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아종식이란 궁극적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죠.”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컨선 본부에 방문했을 때 아일랜드의 히긴스 대통령을 두 번 만났습니다. 기아와 빈곤, 인도주의에 대해 NGO에 근무하는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일랜드 국민도 인도주의에 관심이 높습니다. 늘 세계 정세를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으려 하죠.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관심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경험과 영향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등 개발협력에 진행되는 나라에서는 이미 한국이 ‘롤모델’입니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 사회문제의 솔루션 ‘마음건강’에 있다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더버터

#### ‘제1회 민트포럼’ 개최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에는 실패에 대한 관대함도,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신뢰도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자율성을 잃게 되죠. 고래가 춤출 수 있는 건 칭찬 때문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헤엄칠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펼칠 수 있는 ‘바다’가 필요합니다.”(장대익 가천대 스타트업칼리지 석좌교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더버터가 마음건강을 주제로 ‘제1회 민트포럼(MinT Forum)’을 개최했다. ‘민트(MinT)’는 마음(Mind)에 닿는다(Touch)는 의미로, 강한 생명력으로 빠르게 자라는 식물 민트처럼 마음과 연결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3층 디자인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기초강연자인 장대익 가천대 스타트업칼리지 석좌교수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마음을 연결하다’라는 큰 주제 아래 강의와 토론을 펼쳤다. 기업과 NGO 관계자, 연구자, 학생, 일반 시민 등 150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장대익 교수는 한국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집단주의’와 ‘획일화된 가치체계’를 꼽았다. 그는 집단주의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가치를 획일화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경쟁을 부추겨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1부 순서에서는 우울·고립을 직접 겪거나 주변인의 어려움을 목격한 당사자들이 무대에 섰다. 감정일기인스타툰 ‘서늘한 여름밤’의 이서현 작가는 “사람들이 배우자·친구·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인데, 유독 자신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댈다”면서 “나에게도 자격을 따지지 말고 사랑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박소현 펍킨의날갯짓 공동대표는 정신질환이나 은둔·고립을 겪는 청년들이 모여 만든 자립 프로젝트를, 코미디언 겸 배우 김기리는 자신이 몸담은 연예인 자살 예방 모임 ‘게이트 키퍼’의 활동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동양철학·정신의학·뇌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다.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은 ‘동양철학에서 찾은 마음 처방’을 주제로 마음 회복력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희로애락 네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가 지나치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1회 민트포럼’ 현장. 김용재 기자

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중화(中和)’다. 두 번째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에게 진실하고 떳떳한 태도를 유지하는 ‘신독(慎獨)’이다. 세 번째 ‘자득(自得)’은 어떤 상황이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합당한 솔루션을 찾아내는 태도를 말한다. 박 원장은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타인과 연결되고, 자신을 존중하면서 회복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대현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회복탄력성을 얻는 방법에 대해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윤 교수는 “불편한 감정보다 더 위험한 것

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나는 이래서 안 돼’라며 몰아붙이는 태도”라며 “자신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과학자인 장동선 궁극한뇌연구소 대표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연결되면서 뇌 안에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면서 “얼굴을 마주하고 뇌와 뇌가 맞닿는 연결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부에서는 2부 연사들과 김정석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모더레이터는 김시원 더버터 대표가 맡았다. 윤대현 교수는 언제나 마음을 털어놓고 공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공감친구’를 매년 한 명씩 만들어보라고 조언했다. 박재희 교수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더 자주 만나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마음정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원 대표는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관계를 만들고, 어떤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연결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 ‘새 정부에 바란다’... 비영리 19곳, 정책과제 공동 제안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19일이 남았다. 기후변화·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등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를 풀어야 새 정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도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 새 정부는 어떤 법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까. 국내 주요 비영리단체 19곳이 새 정부를 향한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기부문화 활성화, 아동 권리 강화, 위기 청소년 지원, 시민사회와의 ODA 협력 확대, 장애인 지원 체계 개선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공동 정책제안에 참여한 비영리단체 19곳

국제구조위원회, 굿네이버스, 굿피플, 기아대책, 밀알복지재단, 바보의나눔, 부스 러기사랑나눔회, 사랑의달팽이, 세이브 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열매나눔재단, 월드비전, 초록우산, 컨선월드와이드, 플랜인터내셔널코리아, 한국해비타트, 함께하는재단, 함께하는사랑밭, 홀트아동복지회.

- 1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 2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국가 책임 강화
- 3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마련
- 4 시민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ODA 구조 개편
- 5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사진 바보의나눔]



[사진 굿네이버스]

비영리단체들은 위축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기부 참여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기부 참여율은 2013년 34.6%에서 2023년 23.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기부 단체들의 중론이다. 현행법상 일반 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에 15%, 초과분에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미국(최대 60% 소득공제), 독일(최대 20% 소득공제), 일본(최대 50% 세액공제) 등 주요 국보다 한국의 세제 혜택은 낮은 편이다. 굿피플·바보의나눔·초록우산 등 모금 단체는 ▶기부금 공제 방식 선택권 부여 ▶공제율 상향 ▶부동산·주식 등 현물기부에 대한 세제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선진국에서는 유산기부가 하나의 기부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 제도와 기부처에 대한 규제 등 여러 제약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산기부가 확산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동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 제정도 주요 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다.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한계에서 나아가 아동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된 내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각 단체는 이를 토대로 ▶아동 생활 공간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강화(굿네이버스)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세이브더칠드런) ▶아동 친화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월드비전) ▶아동의 마음건강 지원(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호(초록우산) 등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아동 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나눠 맡아왔지만, 정책이 분산되고 중복되는 한계가 있었다. 아동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담 부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 단체들의 의견이다.

현 정책이 놓친 아동·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 가정박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신청주의’ 방식의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은 복지 서비스 탐색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기 쉽다. 시간 빈곤을 겪는 영케어러의 경우 접근성은 더욱 떨어진다. 아동·청소년이 자주 방문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시군구 기초 단위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지원 대상을 넓게 포괄하는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자립 지원의 경우 현 제도에서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청년만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인정한다. 청소년 쉼터, 소년원 등 다른 보호 체계에서 나온 위기 청소년은 제외된다. 열매나눔재단은 “이들을 포괄하는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정책도 혼인과 출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아대책을 비롯한 주요 단체는 난민 아동, 미등록 이주 아동, 이혼이나 해체된 이주 가정의 아동 등은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된 현실을 지적하며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주아동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국제구조위원회]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는 시민사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정부 ODA 예산은 6조5010억원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집행하는 민관협력사업 예산은 650억원(약 1%)에 불과하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시민사회 협력 구조는 정책 선언에 비해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국내 NGO들은 ODA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인도주의 활동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NGO와의 협력은 필수라고 주장한다. 국제구조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ODA 자금을 필요한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적 개발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연한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컨선월드와이드는 “정부와 NGO의 관계에서 NGO의 협력 수준을 격상하고, 시민사회가 개발협력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기존 제도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 구축도 업계가 요구하는 개선점이다.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복합적인 취약성을 가진 소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청각장애인이 꼽힌다. 시청각장애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겪는 중복장애 유형이다. 국내에 약 1만 명의 시청각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밀알복지재단은 “시청각장애인은 단순히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합쳐진 유형이 아니라, 시청각장애인으로서는 겪는 특수한 어려움이 따로 존재한다”며 “시청각장애를 독립된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가의 필수 치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공와우’ 지원이 대표적이다. 인공와우는 보청기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듣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장치다. 하지만 귀 한쪽 수술에 1000만원, 소모품인 외부 장치 교체에 매년 1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해외 선진국은 최소 3년마다 외부 장치 교체 비용을 지원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평생 1회의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사랑의달팽이가 지원 확대를 요청하며 진행 중인 서명 캠페인에는 지난달 말 기준 5만 명이 참여했다.

김시원·문일요·최지은 더버터 기자

## 문제 해결하는 것도, 혁신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 1면 ‘기반조성기부’에서 계속  
반면 기반조성기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직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경우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리턴(Social Return)’을 만들어 낸다.

조직·사람·인프라에 관심을 갖는 기부자들은 대개 창업가 출신이다. 비즈니스로 ‘혁신’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다 보니 필연적으로 이 3대 영역에 끌리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실상 이제 가지가 영리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기부자들은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김강석 기부자는 “비영리의 차세대 리더 육성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 확보가 필수적인데 비영리에서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것 같

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혁신을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고 했다.

### 3대 영역에 기부하라

다음세대재단은 비영리 영역에 ‘창업’ 관점을 도입한 인큐베이터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교육, 돌봄, 환경, 복지 등 혁신적인 솔루션을 가진 비영리스타트업 49개 팀을 발굴하고 육성했다.

최근에는 조직·사람·인프라 등 3대 영역에 대한 세 가지 기금을 조성하는 새로운 개인기부 캠페인 ‘에버래스팅 프런티어’를 시작했다. ▶비영리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임팩트 비기닝 기금’ ▶비영리창업가와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스타터 임파워링 기금’ ▶사실임대료와 디지털 기기, 공유 공간 등을 지원하는 ‘배이적 인프라 기금’이다.

방대욱 대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던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다시 한번 혁신을 이어가

는 행태가 될 것”이라며 “기부자를 상징하는 색상을 기금 명 뒤에 붙이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나씩 늘려갈 예정”이라고 했다.

스타트는 김강석 기부자가 꿈었다. 기부자의 상징색인 ‘블루’를 붙여 탄생한 ‘임팩트 비기닝 블루’ 프로그램이다. 48 곳에 달하는 비영리스타트업이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서를 냈고 현재 서류 심사 중이다.

방대욱 대표는 “보이지 않는 기부, 사람 중심 기부, 혁신을 만드는 기부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비영리스타트업 대표들을 ‘비영리창업가’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창업가가 ‘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뜻이죠. 목적이 뚜렷해야 투자(기부)도 받을 수 있어요. 비영리 조직과 사람에 대한 투자는 단체를 살찌우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곳곳에 뿌려져 우리 사회를 살찌우게 될 겁니다.”



서울 종로구의 '동락가'에 입주한 비영리 활동가들의 모습.

[사진 다음세대재단]

# “가족 돌봄청년 맞춤형 지원체계 만들자”... 당사자들이 말하는 정책은

## 돌봄청소년옹호활동가 ‘WAVE’ 당사자들이 모여 관련 정책 제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 돌봄아동·청년(이하 돌봄청년)’ 관련 정책 제안에 당사자들이 직접 나섰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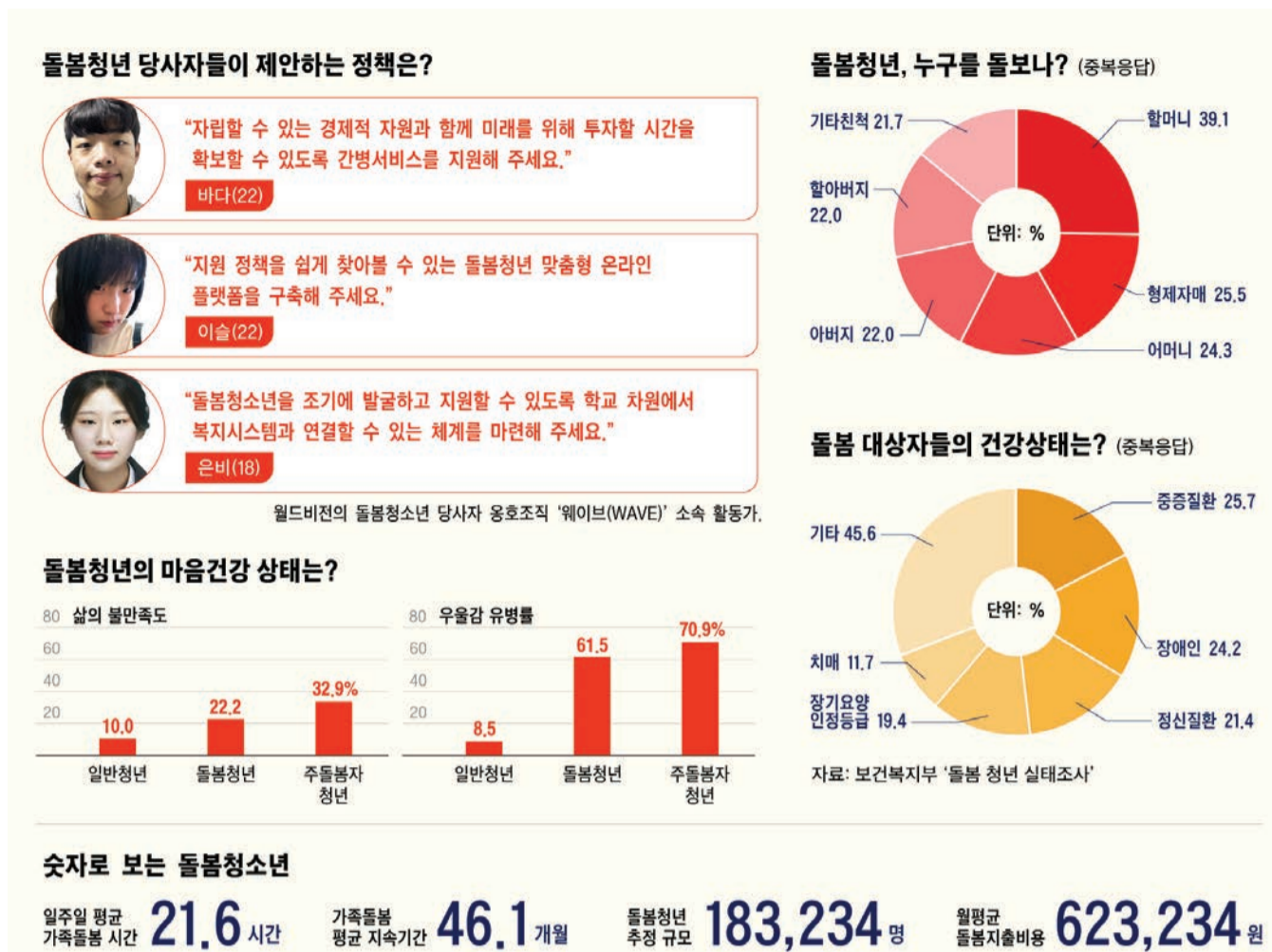
돌봄청소년은 중증질환이나 장애·정신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34세 이하를 이르는 개념이다. 해외에서는 ‘영케어러(young carer)’라고도 부른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당사자 조직인 웨이브(WAVE) 활동가 3명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웨이브는 월드비전의 돌봄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로 구성된 권리 옹호활동가 조직이다. 이들과 간병과 생계, 학업을 병행하며 겪은 어려움, 복지정책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고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제안 정책으로는 ▶능동적인 지원 대상 발굴과 서비스 연계 중심의 복지 체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현장 전담 인력 확충 ▶맞춤형 조기 지원과 자립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 지원만큼 중요한 대상자 발굴

올해 고3 수험생인 은비(활동명)는 일곱 살부터 가족을 돌보는 일을 했다. 벌써 10년이 넘었다. 알코올성 치매인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고, 오빠와 언니는 지적장애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식구 중 요리를 하고 식사를 챙길 수 있는 사람도 은비가 유일하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돌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주돌봄자’인 셈이다.

그런데도 은비는 ‘돌봄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올해 초 학교에서 처음 들었다. 본인이 돌봄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됐다. “가족을 돌보는 일은 당연하게만 여겨왔어요. 가끔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그걸 누군가 알아주



고 지원해 줄 거란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청소년들은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차원에서 복지 시스템과 연결해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현행 제도로는 돌봄청소년 스스로 직접 복지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야 한다. 학업과 간병을 병행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쉽지 않은 조건이다. 월드비전이 지난해 돌봄청소년 1117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돌봄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지원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학에 다니는 이슬(활동명)의 제안도 비슷했다. 그는 “돌봄청소년의 상황

이 워낙 다양해서 복지 제도가 있더라도 내가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무척 어렵다”며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에서도 온갖 정보가 섞여 있어서 돌봄청년 맞춤형으로 전용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만 인천·울산·충북·전북 등 4개소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이슬은 “운 좋게도 발굴 대상에 들어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관할 지역이 넓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이 훨씬 많다”며 “맞춤형 사례관리와 발굴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에 투자할 시간조차 없어 돌봄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시간 빈곤’이다.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인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돌봄청년은 일주일에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썼다. 주돌봄자의 경우 주당 평균 돌봄시간이 32.8시간으로 훨씬 길어졌다. 하루 4시간이 넘는다. 돌봄기간은 평균 46.1개월로 조사됐다. 주로 돌보는 대상은 할머니(39.1%)였고, 형제자매 25.5%, 어머니 24.3%, 아버지·할아버지 각 22.0%로 나타났다.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을 돌보는 경우도 21.7%나 됐다.

대학교 4학년인 바다(활동명)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간다. 수업이 있는 날에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학교 행정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주말에도 패

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한다. 평일에는 뇌전증을 진단받은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우울증을 앓는 여동생도 챙기고 있다. 그는 “취업을 위해 성적을 관리하고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한때는 공부하고 스트레스 풀러 놀러 가는 친구들이 마냥 부럽기도 했는데, 돌봄청년에게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과 함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돌봄청년을 10년 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영국에서는 ‘단기 돌봄 서비스’를 통해 주돌봄자의 시간 빈곤을 해결하고 있다. 주간돌봄센터 이용이나 요양원 단기 체류를 포함해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중앙정부는 간병인 수당을 돌봄청년에게 지급해 가족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후주 정부에서는 지역 비영리단체들을 통해 대면 혹은 전화 상담, 온라인 기술 지원, 재정 패키지 지원, 긴급 임시 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 ‘영케어러 보조금’은 돌봄과 학업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도록 연간 4000호주달러(약 36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법이 시행되는 건 2년 후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시행령에 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했다. 남상은 월드비전 옹호실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법이 실효성 있는 복지로 이어지려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대상자를 조기 발굴하고 개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 ‘2025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참여 조직을 모집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25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에 참가할 사회공헌 사업 제안팀을 모집한다.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할 파트너들을 연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조직과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탐색하는 기업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매년 200여 곳의 공공기관과 기업, 비영리단체, 사회혁신 조직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사회공헌센터·더버터가 주관하며,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후원사로 참여한다.

모집 대상은 창의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이다. 올해는 ‘매칭트랙’과 ‘성장트랙’

두 부문으로 나눠 모집을 진행한다.

‘매칭트랙’은 설립 5년 차 이상이며, 예산 2000만원 이상의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조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가팀에는 총 3개월간 기업 사회공헌 전략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교육 기간에 실무를 담당하는 기업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기회도 주어진다. ‘성장트랙’은 설립 5년 차 미만인 조직이 참여하는 역량 강화 중심 코스다. 참가팀은 제안서 발표 실습, 전문가 상담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열리는 ‘2025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에서는 기업·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안 사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전시하면서 함께할 파트너를 모색할 수 있다. 이번 행사 당일에는 총 5팀의 우수 사업제안팀을 선정해 ▶최우수상 300만원(1팀) ▶우수상 200만원(2팀) ▶장



‘2024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사회공헌 분야의 협력을 주제로 각자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려상 100만원(2팀) 등 상장과 상금을 시상한다.

우수 사업제안팀에는 사업 진행을 위한 실증 사업비도 지원한다. 지난해 우수상을 수상한 비영리단체 도시를만드는사람들은 재단법인 숲과나눔·사랑의

열매와 ‘열린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니어·어린이 등 다양한 주민과 도시 곳곳에 쉼터·놀이터와 같은 공공 공간을 만들었다. 소셜벤처 키무스튜디오와 티머니복지재단은 장애 예술인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배

리어프리 전시회를 올해로 3년째 개최하고 있다.

모집 마감은 6월 8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홈페이지(crc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 매일 한 명씩 사라진다... 아이들의 죽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학생마음건강증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교사·NGO전문가 3인 대담

초등학교도 안심할 수 없다. 초등학생 자해와 자살 사고가 조용히 늘어나고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경고등이 켜졌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신호에 더 늦기 전에 응답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은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에 집중한 최초의 법안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한국의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서지영 의원, 우지향 서울선사고 전문상담교사,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이하 유니세프) 아동권리실장이 지난 4월 24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에 모였다. 법안의 의미와 필요성, 현실화를 위한 과제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개인의 문제인가

-2023년 아동청소년(10~19세) 자살 사망자 수는 370명이었다. 하루에 한 명씩 자살로 아이들을 잃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지향(이하 우)=매체의 영향이 크다. 24시간 욕설하는 유튜브, 자해나 자살에 대한 내용이 여과 없이 등장하는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자살을 힘들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정서적 어려움에 대처할 방법을 익히지 못해서 그렇다.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해소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류현(이하 류)=마음건강 문제를 숨기는 아이들도 많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자살사망자 대부분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상군에 속했다. 학교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서지영(이하 서)=한국 사회는 아동청소년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여겨왔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때 이 문제를 다루는 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번에 법안을 만들면서 비슷한 법을 다 찾아봤다. 교육부의 ‘학교보건법’은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인데 마음건강에 관한 내용은 부족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법이고, 여가부의 ‘청소년기본법’은 모든 청소년 관련 내용을 망라한 법이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이 시급하다.

-사회적인 관심과 시스템의 부재 속에 아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과 혼란이 클 것 같다.

▶우=자살과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가 점점 어리고 있다. 최근 자살 사고가 있었던 한 초등학교에서 생명존중에 대한 강의를 요청해 다녀온 적이 있다. ‘나는 왜 태어났는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았다. 자기 자신에 관해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고 싶어 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수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학교에서 자살예방교육이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자살예방교육은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대다수 아이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내 감정과 마음을 살피고 관리하는 법,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사회정서교육’이 학교 현장에 더 필요해 보인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류=미국은 사회정서교육을 정규교과 안에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사회정서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 통합해 운영한다. 대부분의 마음건강 문제가 14세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아기에 시작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워주는 게 효과적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에 관한 대담이 벌어졌다. 류현 유니세프 아동권리실장, 우지향 서울선사고 전문상담교사와 법안을 발의한 서지영 국회의원(왼쪽부터)이 대담에 참여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에 관한 대담이 벌어졌다. 류현 유니세프 아동권리실장, 우지향 서울선사고 전문상담교사와 법안을 발의한 서지영 국회의원(왼쪽부터)이 대담에 참여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에 관한 대담이 벌어졌다. 류현 유니세프 아동권리실장, 우지향 서울선사고 전문상담교사와 법안을 발의한 서지영 국회의원(왼쪽부터)이 대담에 참여했다.

### 보호자 80%는 상담을 거부한다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서=한마디로 ‘치료’보다는 ‘예방’에 방점이 찍힌 법안이다. 기존의 치료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예방-발견-치료를 이어지는 통합적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도입해 모든 학생이 조기에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류=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수년 전부터 아동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보편적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해 마음건강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4년째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서=사회정서교육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정서교육의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작년에 우리나라 교육부도 사회정서성정지원과를 신설했다. 마음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보호자’ 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더라.

▶우=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 아이들이 힘들다며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난 뒤에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우리 아이를 비정상적으로 보지 말라’며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호자 상담을 요청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20%에 불과하다. 80%는 거절한다. 놀라운 건 그 20%의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진다는 것이다.

-사례가 있다면.

▶우=고등학교 2학년 아이였다. 자해와 자살 시도가 있어 상담을 진행했다. 학교생활도, 대인관계도 어려워하고 자존감도 너무 낮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이 맞벌이하면서 지방으로 출퇴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1학년 동생을 등하교시키고 밥 챙겨주는 일을 혼자 도맡아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집안 정리가 안 돼 있다면서 혼내기만 했다. 아이는 그때 처

음으로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 생각했다.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아이에게 남아 있었다. 부모 상담을 통해 이 내용을 듣게 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아이를 위로했다. 그 후로는 아이가 너무 많이 밝아져서 보호자의 역할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류=유니세프도 보호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마음건강 교재를 제작할 때도 ‘보호자용’을 따로 만들어 배포했다. 보호자가 자신의 감정과 마음, 스트레스에 대해 먼저 이해한 다음에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서로 구성된다. 보호자가 행복해야 아이의 마음건강을 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상담교사들 사이에서 보호자용 마음건강 교재에 대한 반응이 무척 뜨겁다.

▶서=이번 법안에도 부모 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양육 방식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의 문제점만 생각하면 개선 방향이 안 보일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토론회를 거쳐 내실 있는 법안이 되도록 조정 작업을 할 예정이다.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이 법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지금은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가 1명씩 배치돼 있다. 한명이 수백 명의 아이를 책임지는 구조라 부담과 공포가 느껴질 때도 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700~800명, 1000명까지 돌보는 경우도 있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어렵다. 혹시나 상담교사가 문제를 포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더 잘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때로는 트라우마로 남기도 한다. 전문인력의 확보와 배치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담겼으니 학교의 풍경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서=교사 한 명이 모든 아이를 책임지는 건 말

이 안 된다. 전문상담교사-정신건강전문가-사회복지사 등 ‘팀 기반’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선생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 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를 만들고 지역별 센터를 꾸려 학교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지역 연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상담의 영역을 넘어선 복지의 영역, 경제적 지원 등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사가 개별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주는 구조였다. 지역 센터나 기관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마음건강 지원의 큰 틀이 바뀌는 건가.

▶류=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협력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 중심 지원에서 소외됐던 ‘학교밖청소년’도 끌어안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 나아가 OECD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려면 어떤 노력이 추가로 필요할까.

▶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등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을 다루는 부처가 분산돼 있고 서로 연계가 안 된다는 점이 아쉬웠는데 이번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은 최초로 부처 간 통합법안으로 제안됐다. 통합법안이 나와야 총괄부처가 생기고 예산도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서지영 의원이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셨다.

▶서=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 당국에 요청할 게 많다. 꼭 하고 싶은 건 ‘마음건강검진’이다.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검진을 법제화하고 싶다. 아이들의 신체발달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영유아검진을 하는 것처럼 마음건강 문제를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다.

▶우=몇 년 전 유럽에서 비슷한 걸 봤다. 아이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태어날 때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스크리닝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신체화 증상이 없는지 정신과 전문의가 체크하는 식이다. 신체적인 건강함이나 학습적인 부분만 신경 쓰는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마음건강이나 공동체의 행복에 대한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서=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마음건강이라는 키워드가 이제라도 우리 사회에 등장하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마음건강 이슈에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달 24일 열린 대담 참여자들. 왼쪽부터 류현 유니세프 아동권리실장, 우지향 서울선사고 전문상담교사, 서지영 국회의원.

대담 진행·정리=김시원 더버터 편집장



월드비전 '함께그린식탁' 캠페인에 함께한 심진화·김원호 부부. [사진 월드비전]

## 돌봄공백 메우는 따뜻한 도시락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푸드테크 기업 어글리어스와 함께 '함께그린식탁'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돌봄공백 속에서 제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전달하고 정서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그린식탁은 식사 지원을 통해 아동의 가정 상황을 직접 살피고 필요한 경우 지역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방송인 심진화·김원호 부부와 요리사 장호준이 함께한다. 이들은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과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며 대중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후원금은 월드비전의 국내 영양지원사업인 '아침머췌' '사랑의도시락' '주말에 뭐먹니'에 사용된다.

캠페인에 참여한 후원자와 '주말에 뭐먹니' 사업 후원 아동에게는 어글리어스가 준비한 채소 박스도 전달된다. 채소박스에는 맛과 영양은 같지만 크기나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못난이'로 분류된 친환경 농산물이 담긴다. 버려질 위기에 놓인 농산물의 가치를 되살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속가능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식생활의 결핍이 아동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이번 캠페인이 아이들에게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함께그린식탁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월드비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 “조금씩 나눠보세요, 멈추지 않으면 평생 갑니다”

### 일상의 기부자들 한병수·김은희씨 부부 인터뷰

어렵게 얻은 아이였다. 30년 전, 한병수(68)·김은희(66) 부부는 쌍둥이를 품에 안았다. 결혼 10년 만이었다. “벽에 대고라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다”는 젊은 부부는 그 마음을 담아 월드비전에 정기 후원을 시작했다. 연말이나 후원 아동의 생일, 졸업식일 때면 선물을 보냈다. 큰돈을 낸 적은 없었다. 대신 30년을 쉬지 않았다. 최근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 카페에서 만난 부부는 말했다. “기부를 크게 하지 않아도, 멈추지 않으면 오래 갑니다.”

-왜 기부였습니까.

▶김은희(이하 김)=아이들을 낳고 나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종교도 없는데 어디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을 만큼요. 그러다 어느 방송에서 정기기부 이야기가 나오길래 ‘우리도 해보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평소 기부를 했었나요.

▶한병수(이하 한)=거제 조선소에서 일할 당시 ‘애광원’이라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기부도 하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됐죠. 아내가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를 알아봐서 함께 시작하게 됐죠.

-국내 아동만 쪽 후원해 왔습니까.

▶김=그때만 해도 월드비전에서 후원 아동을 배정해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국내 아동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느 날 성인이 되어 독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뿌듯했죠. 벌써 4명째 아이를 만났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까.

▶한=아이 생일이나 연말에 자필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답장이 오면 그렇게 반가워요.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결국 성인이 되어 독립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쩡해요. 그제야 ‘이 아이가 무사히 잘 자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가 키운 건 아니지만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다는 느낌이랄까요.

-30년간 후원을 이어오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한=‘기부를 그만해야 하나’라는 고

민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큰돈이 아니어서 오래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죠. 인젠가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기부액은 그대로라는 생각으로 증액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후원을 계속 이어가셨다고요.

▶김=많은 금액을 못 할 뿐이지 바뀐 건 없어요. 오히려 생활이 조금 더 단순해지니까 오히려 ‘기부는 계속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 아기 돌보는 일을 하는데, 젊은 엄마들에게 가끔 이야기해요. ‘기부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기분 좋다고요.’

-자녀들에게도 기부 이야기를 하시나요.

▶한=종종 이야기해요. 누굴 돕다 보면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감정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기부를 가끔 권해요. ‘엄마·아빠가 죽으면 너희가 이어서 하라’는 식으로요. 강요해서 되나요. 자연스럽게 배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부 외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신 적이 있나요.

▶한=꼭 돈을 기부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시간을 쓰는 것도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직장 다닐 때 임직원 봉사활동에 꼭 참여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아내도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장애인 시설 봉사인가요.

▶김=그때 부녀회에서 함께 모여서 봉사를 나갔어요. 처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식사를 돕는 일을 부탁하는데 못 하겠다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게 지금도 기억나요. 40년 지났는데요. 그런데 봉사도 하니가 늘더라고요. 이후론 청소도 하고 허드렛일도 맡아 했어요.

-두 분이 나눔을 통해 느낀 변화는 무엇인가요.

▶김=누군가를 돕자고 시작한 일인데, 돌아보면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조금 더 관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거예요.

▶한=솔직히 특별한 결심이란 건 없어요. 그냥 ‘자동이체 해놔으니 계속되



“조용히 오래 기부하는 게 우리의 방식”이라는 한병수·김은희 부부는 30년간 국내 아동을 지원해 왔다. 김용재 기자

는 거지’ 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런데 정기기부 결정이 우리 삶에 한가지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바쁜 생활이라도 ‘기부만큼은 해야지’ 같은 그런 거요.

-기부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한=무언가를 바라고 시작하신 마세요. 그럴 거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눔은 결국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 스

스로가 기분 좋고, 살아가는 데 의미를 더하게 되죠.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한번은 경험했으면 해요.

▶김=무리해서 큰 금액을 기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5000원도 좋고, 1만원도 좋아요. 그렇게 적게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기기부 같아요. 문일요 더버터 기자

## 칼럼

# 이완용이 만든 ‘기부금품법’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지난해 가을, 한 시민단체 후원자 2000여 명의 계좌 정보가 압수수색 당했다.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자택과 직장 주소까지 수색된 사실이 3개월이 지나서야 통지되면서 후원자들의 혼란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비회원 모금액이 1000만원을 넘기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십시일반 참여한 후원자들까지 옥죄는 기부금품법은 무엇이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기부금품법은 미등록 모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다. 시민 누구든 사전 등록 없이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으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사기나 횡령도 아니고 사전 등록을 안 했다고 형사처벌이 라니. 뒤늦게 이 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후 등록할 방법은 없다.

좁혀림 이해되지 않는 이 법의 연원을 찾자 여러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았지만, 유사한 체계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다 발견한 게 대한제국 내각총리대

신 이완용이 만든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국권 침탈이 다가오자 일본의 차관을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국을 위한 지식인 양성 목적으로 의무교육운동이 일어났다. 대한제국 국민의 모금으로 학교를 설립·운영해 나가는 교육·자강운동이 확대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한 이완용 명의의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이 제정된다. 이때부터 허가받지 않은 일체의 모금이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감시망을 피한 모금은 계속되었고, 이에 대응하며 모집비용 사용 금지, 징역형 추가 등

더 강력한 제재가 덧입혀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집 규제는 해방 후에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등 다양한 이름으로 100여 년간 지속되었다. 2006년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나 모집비용 규제, 징역형 제재 등 규제의 틀은 변하지 않았다. 2006년 법 개정 당시 ‘민간기부에 대해 국가가 과도한 통제를 하는 입법례는 선진국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기부하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시민 활동의 활성화 위해 시대착오적이고 관료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기부금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또 20년 가까이 흘렀다. 그 사이 세법이 강화되어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기부금 감독 체계를 갖추고 투명성이 강조되는 등 많은 사회 변화가 있었지만, 신고제나 자율화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권침탈·외환위기·비상계엄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민은 사재를 내놓고 거리로 나섰다. 극심한 양극화와 성장 정체에 처해있는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할 해답도 여기에 있다. 시민의 연대를 억압해 온 이완용의 유물에 갇혀 있을 것인지, 자유로운 모금과 활성화를 위한 새 판을 짤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

# 디지털로 열린 새로운 세상... 시니어의 삶이 바뀐다

## 카카오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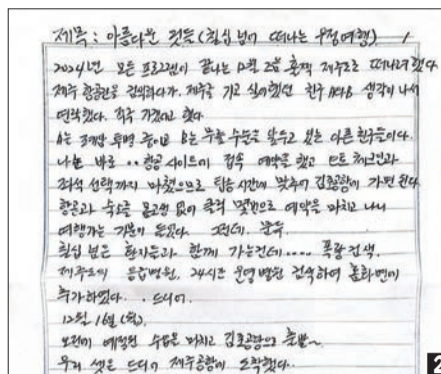
"우리도 친구끼리 제주 가자!"

70대 중반의 여성 3명이 무작정 떠난 제주 여행. 이들 중 한 명은 폐암으로 투병 중이고, 또 한 명은 무료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항공권 예매부터 제주 시내 교통편, 숙소 예약, 맛집 위치 파악과 위급 상황에 찾아가는 병원 정보까지 챙겨야 할 게 많았다.

이번 여행을 주도한 양훈심씨는 스마트폰 하나로 이 모든 걸 해결했다. 비행기표와 숙소는 항공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했고, 오토 체크인과 좌석 선택도 마쳤다. 숙소도 몇 번의 터치로 결제까지 했다. 응급실이 있는 24시간 운영 병원을 검색해 스마트폰 홈 화면에 추가해 놓기도 했다. 택시호출 앱은 3박4일간 이들의 발이 됐다. 양씨는 "하루 세 번씩 제주 곳곳의 명소를 찾아갈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불렀고 결제도 간편결제로 손쉽게 해결했다"며 "스마트폰이 효자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행도 걱정없다

시니어들의 디지털 활용은 일상을 바꾼다. 변화의 배경에는 카카오와 카카오인팩트가 시니어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이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 등 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1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에 참여한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의 모습. 2 수강생 대상의 수기 공모전에 서울송파복지센터의 양훈심씨가 보내온 편지 [사진 카카오인팩트]

교육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카카오톡·카카오맵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용법을 익히는 '생활교육'과 카카오페이 활용법, 금융사기 대처법 등을 배우는 '금융교육'(사각사각 페이스쿨)이다.

수강생들은 교육 이후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고 말한다. 한국노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활용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점수 역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스마트폰 활용 빈도가 높은 그룹은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가 4.01점(5점 만점)으로, 활용 빈도가 낮은 그룹(3.12점)보다 약 28% 높았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의 활용이 정보 접근력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통제감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족과의 연락, 정보 검색, 금융 서비스 이용 등을 자주 수행하는 시니어일수록 자기

효능감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교육 수료자인 양훈심씨는 "제주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 생애 마지막 여행일지 모르겠다'는 친구의 말에 이제 시작이고 다음 계절에 또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부산에 사는 고경애(70)씨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는 "디지털 교육을 여러 번 받아봤지만, 제대로 된 교재도 없이 하다 보니 늘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카카오 수업은 큰 글씨 교재와 함께 대면 수업도 진행해서 활용하는 기능이 엄청 늘었다"고 했다.

고씨는 은행 창구를 찾지 않고 간편결제 앱으로 경기도에 사는 딸에게 선물을 보내고, 대만에 있는 딸과 영상통화도 한다. 병원에서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부24' 앱에 접속해

비밀 신분증을 보여주고 진료를 보기도 했다. 고씨는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대에 계속 공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세대를 잇는 '디지털 포용'의 가치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윤현황(67)씨는 손주 용돈을 스마트폰으로 보낸다. 예전이면 봉투를 준비해 손에 쥐여 줬지만,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족에게도 이따금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다. "처음에는 '이렇게 용돈을 보내도 정이 있을까' 싶었지만, 바로 영상통화가 연결되고 서로 웃는 얼굴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이렇게 원격으로 선물을 전해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지는구나 싶어요. 변화를 두려워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변화가 얼마나 얼마나 따뜻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최중자씨는 가족을 위해

스마트폰을 배웠다. 최씨는 "우리 부부가 유일하게 즐기는 영화 감상을 위해 극장표를 간편하게 예매하고, 서울에 사는 큰딸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면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 정도"라고 말했다.

"아무리 하루 생활권이더라도 해외에 자주 못 오는 딸네 생일 때면 케이크나 피자, 통닭을 보내곤 합니다. 축하 글과 함께 선물을 보내면 사위가 '신식 장모님'이라고 하는데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작은딸네 손녀가 오면 햄버거 매장 가서 키오스크로 능숙하게 주문하는 '신식 외할매'의 모습도 보여주려고 합니다."

카카오는 '디지털 포용' 확대를 위해 올해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포용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모든 세대가 디지털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카카오인팩트는 참여 기관을 전국 150곳으로 확대하고, 맞춤 교재 10만부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권으로 출강 가능한 강사진을 120명 이상 육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디지털 현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지수 카카오인팩트 매니저는 "교육 전에는 질문도 조심스러워하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기기를 다룬다"며 "디지털 기술은 세대 간 단절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 자작나무 쓰러진 자리에 다시 숲을 만든다

## 유한킴벌리 '신혼부부 나무심기'

"비료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잠깐, 여기 돌 있어. 내가 뺄게." "다 심었다! 소원 빌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맑은 공기를 위하여!"

지난달 12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의 자작나무숲에 모인 신혼부부들은 2인 1조로 바쁘게 움직였다.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은행나무 묘목 30그루 심기. 이날 심은 20cm짜리 묘목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기까지는 30년이 걸린다. 아내 국서정(32)씨와 함께 온 성주환(33)씨는 "아이가 서른 살이 됐을 때 함께 다시 와볼 생각"이라며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다들 일도 많겠지만, 여기 나무와 함께 심어 둔 신혼 때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잘 살고 싶다"고 했다.

신혼부부들을 숲으로 불러 모은 건 유한킴벌리다. 유한킴벌리는 국내 최장수 숲환경 공익 캠페인 '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로 41년째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나 결혼을 확정된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산불 이슈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프로그램 인기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고 경쟁률인 21대 1을 기록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신혼부부 106쌍과 유한킴벌리 임직원, 협력기관인 생명숲·산림청·인제군 관계자 350명이



지난달 12일 강원 인제 자작나무숲에서 열린 '신혼부부 나무심기'에 참가한 부부. [사진 유한킴벌리]

이날 행사에 함께했다.

### 누적 참여 6만 명, 대를 잇는 참여 확산

참가자들이 방문한 곳은 한때 약 70만 그루의 자작나무가 숲을 이뤘던 구역이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자작나무들이 빼곡하던 이곳에 2023년 12월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렸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었다. 온난화로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면서 내리는 습설은 마른 눈보다 2~3배 더 무겁다. 이 눈은 자작나무 가지마다 두껍게 쌓였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무는 바닥을 향해 고꾸라졌다. 산림청은 회생 불가능한 자작나무들을 모두 베어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신혼부부들은 1만5000㎡ 면적에 3년생 은행나무 묘목

4500그루를 심었다. 유한킴벌리는 2027년까지 인제 자작나무숲 결빙 피해지 일대 3만4000㎡에 은행나무와 박달나무, 신나무 약 1만 그루를 심고 가꾼다는 계획이다.

지난 40여 년간 '신혼부부 나무심기' 누적 참가자 수는 약 6만 명. 이들은 전국에 25만 그루 넘는 나무를 심었다. 한 사업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예전에 참가했던 신혼부부의 자녀가 대를 이어 참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권용준(34)씨는 35년 전 참여했던 아버지 추천으로 신청서를 냈다. 권씨가 처음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아버지는 며느리인 남정화(33)씨에게 재차 권유했다고 한다. 권씨는 "결국 아내 손에 이끌려 참가하게 됐는데, 직접 와보니 기대 이상

으로 의미 있고 재미도 있다"며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추천해주고 싶다"고 했다.

### 2030년까지 6000만 그루 심는다

'신혼부부 나무심기' 프로그램은 1984년 시작된 국내 최장수 숲환경 공익 캠페인 '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 캠페인 사업 중 하나다. 당시 산림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해져 있었다. 산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열악했다.

유한킴벌리는 '전국에 100만 그루를 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민간기업 최초로 숲 조성 캠페인을 주도했다. 숲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캠페인, 임직원 나무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신혼부부는 생명의 소중함을 잘 이해하고, 미래세대를 향한 책임감도 크기 때문에 이 캠페인의 주요 참여층으로 꼽혔다.

시대에 따라 프로그램 어젠다도 변화했다. 1990년대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이 가능한 잣나무를 주로 심었다. 신혼부부들은 1985년 충북 제천시 백운면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경기도 안성, 대전시 대덕구 등에 잣나무만 10만3000그루를 심었다.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된 2005~2008년에는 금강산 산

림을 복원하고 북한 주민의 소득원을 마련해주기 위해 밤나무·잣나무·구상나무 1만6000그루를 심었다. 최근에는 산불 피해지나 생물다양성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심기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신혼부부 나무심기' 외에도 유한킴벌리는 ▶미래의 환경 리더를 키우는 '그린캠프' ▶멸종위기종인 '구상나무 보전원 조성'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에 23년간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몽골 유한킴벌리숲'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변화하는 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희웅 유한킴벌리 사회책임워킹그룹 부장은 "고등학생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대학생이 되어 봉사자로 돌아오고, 결혼 후에는 신혼부부 나무심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등 참여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1년간 유한킴벌리가 국내외에 심고 가꾼 나무는 5700만 그루에 이른다. 숲의 규모로 따지면 1만6500ha로, 여의도의 약 60배 크기다. 다음 목표는 2030년까지 누적 6000만 그루를 심는 것이다. 이재훈 유한킴벌리 사장은 "오늘 심은 나무가 10년, 20년 후에는 아이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맑은 공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물할 것"이라며 "유한킴벌리도 우리나라의 숲과 사람이 지속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는 더버터 기자**

# 일상에서 피어난 선한 영향력... 평범한 이웃들의 특별한 기부



청각장애 아동 위해 기부하는 구급대원  
강동묵 기부자

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강동묵씨는 4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청각장애 아동을 구조한 일을 계기로 사랑의달팽이에 정기기부를 시작했다. 구조 당시 아이는 초등학생이었고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구급대원인 강씨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고 울지도 않았다. “이송 중에 보호자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청각장애가 있으면 재난이나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는 “사이렌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파다”며 “인공와우 수술을 지원하는 사랑의달팽이에 매달 후원금을 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소리를 찾아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할 생각이예요.”



61년 전 후원아동, 구족화가 되다  
김명기 기부자

김명기씨는 구족화가(口足畫家)다. 구족화는 사고나 장애로 두 팔을 사용할 수 없어 입이나 발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말한다. 그는 일곱 살 때 감전 사고로 두 손을 잃고 1964년 **플랜인터네셔널 코리아**의 전신인 ‘양친화’를 통해 스웨덴 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다. 그렇게 40여 년이 흐른 2007년, 후원 아동이었던 그는 플랜의 정기 후원자가 됐다.

“스웨덴 후원자가 보내온 엽서를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누군가로부터 도움받고,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나눔은 릴레이처럼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시 그가 받은 사랑은 캄보디아·인도의 두 아이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어린 시절 후원을 받으면서 누군가로부터 응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든 듯했다”며 “아주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부모 여성이 세상에 보답하는 법  
김윤미 기부자

김윤미 기부자는 8년 전 만 7살, 3살짜리 딸 둘을 데리고 이혼했다. 양육비는 받지 못했다. 서류상 증명할 자격이 없어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았다. 겨우 얻은 반지하 집은 비만 오면 물이 됐다. 김씨는 아이들을 위해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열매나눔재단**에서 한부모 여성을 위한 창업 지원을 받았다. 재단은 무이자, 조건 없이 창업 자금을 빌려줬다. 이 돈으로 2018년 꽃게장 가게를 열었다. 마케팅을 배우고,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면서 사업을 키웠다.

이듬해에는 열매나눔재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 소액 기부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받은 도움에 대한 이자를 갚겠다는 마음이었다. 5년 만에 창업 자금도 모두 상환했다. 현재는 수산물 유통 업체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는 김씨는 “기부는 가장 절박했을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11살에 세상 떠난 딸, 생일마다 기부해요  
김용기 기부자

“셋째 딸 태연이는 어릴 때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마음이 참 따뜻한 아이라서 저도 그 애를 보며 많이 배웠죠.”

안과 의사 김용기씨는 2013년 아내와 열한 살이던 셋째 딸을 한꺼번에 떠나 보내야 했다. 전원주택 별채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생긴 일이었다. 그는 가족을 추모하기 위한 작은 의식을 준비했다. 생전 아내는 여성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는 등 나눔에 관심이 많았다. 딸 태연이가 행사장에서 NGO들의 부스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던 모습도 떠올랐다. 그는 매년 태연이의 생일에 맞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1000만원씩 기부하기 시작했다. 올해로 12년째다.

“태연이는 제 마음속에 열한 살로 남아 있습니다. 제 후원금이 태연이 또래 아이들에게 쓰이면 좋겠어요. 제가 보내는 작은 마음이 그 아이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해요.”



아이 낳고 10년째 전 세계 아이들 지원  
김정은 기부자

서울 강남구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는 김정은 기부자는 출산을 계기로 새로운 기부를 시작했다. 매년 11월 11일, 딸 소윤이 생일을 기념해 1111만원을 **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한다. 딸이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기부금은 주로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서아프리카 아동을 대상으로 도서와 책 읽기 활동을 지원했다. 팬데믹 기간에는 우간다 학생을 위한 긴급용품 후원했다. 지난해부터는 베트남의 맹그로브숲 복원과 기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아홉 살이 된 딸과 기부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눈다. “딸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고 말해줘요. 소윤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해요.”



65세에 시작한 기부, 94세에도 해요  
안금옥 기부자

“힘든 시절이다 지나고 나니, 그냥 그러다 감사한 일뿐입니다.”

올해 94세인 안금옥 기부자는 한국 전쟁 이산가족이다. 전쟁 당시 가족과 생이별을 겪고, 서른여덟의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냈다. 양장점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홀로 키웠다. 생전 처음 기부한 곳이 **함께하는사랑밭**이었다. 당시 65세였다. 자식들이 장성하고 각자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경제적 여유가 생겨 시작한 기부는 아니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기에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더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 시절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큰 아들을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에 보내지 못한 것이 지금도 마음 아픕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구두쇠, 1300명 아동 돕다  
우한곤 기부자

우한곤 기부자는 60년 전 부산 국제시장에서 ‘최고 구두쇠’로 통했다. 한 평짜리 속옷 도소매 전문점 ‘일흥상회’를 운영하면서 검은 군복을 한 벌을 헤집 때까지 입고 다녀 붙은 별명이었다. 그래도 아이들을 향한 마음만은 늘 넉넉했다.

올해 82세인 그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 기부한 금액은 12억원이 넘는다. 1975년 처음으로 모교인 중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고,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전환된 1987년부터는 **초록우산**을 통해 아이들을 돕고 있다. 누적 1300명 넘는 아동이 그의 지원을 받았다. 작은 가게였던 일흥상회는 연 매출 1800억원의 의류 기업 티비에이치글로벌로 성장했다.

이제는 아내와 자녀는 물론 사위·며느리·손주까지 3대가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내가 죽더라도 아들이, 또 손자가 내 뜻을 이어 꾸준히 선행을 베풀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가족과 함께한 49년 기부 인생  
이원우 기부자

5000원. 서울 합정동의 한 건물 외벽에 붙은 기부자 모집 글을 보고 처음 낸 후원금이었다. 이원우 기부자는 1977년 대학 재학 시절 **홀트아동복지회**에 정기후원을 시작해 49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대학생의 기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규모가 커졌다. 그렇게 현대건설 부사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정기후원 외에도 결혼기념일이나 자녀의 입대와 제대, 첫 직장 입사 등 가족의 중요한 순간마다 별도의 기부금을 내왔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은 1억6000만원이다.

이씨는 퇴임 이후 아내와 함께 홀트 아동복지회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 홀트 일산복지타운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서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고 말했다.



공연으로 전쟁 피해아동 돕는 발레리나  
이주희 기부자

발레트리티니 대표 이주희씨는 문화예술의 힘으로 나눔을 확산하는 무용인이다. 자선 공연과 무용 특강으로 기부금을 모아 **국제구조위원회(IRC)**에 전달하고 있다. 이씨는 2022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당시 재능기부 형태로 무용 특강을 열어 480만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무용인들과 함께 뜻을 모아 발레·현대무용·한국무용 클래스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특강의 취지를 주변에 알리자 무기명 기부와 참여가 이어졌죠.”

지난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맞아 발레 자선공연을 열어 71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예림당아트홀에서 열린 공연에는 200명이 넘는 관객이 참석했다. 이날 모인 기부금은 전쟁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해 전액 기부됐다. “특강이나 자선공연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음을 움직이고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예술의 힘이 아닐까요?”



입양으로 얻은 기쁨, 기부로 갚다  
정샘물 기부자

“기부는 제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제 기부만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는 있다고 믿어요.”

30년 넘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정샘물 기부자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정기후원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기부를 삶의 일부로 실천해왔다. 2013년부터는 소중한 두 딸을 만나게 해준 **대한사회복지회**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입양을 통해 아이들과 가족이 됐어요. 덕분에 비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입양을 기다리던 다른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남편과 그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하기로 했죠.”

그는 대한사회복지회에 총 138회, 누적 5억6881만원을 기부했다. 2020년엔 정 기부자가 로열야너스 클럽 1호 회원으로 가입한 데 이어 남편 유민석 정샘물부터 대표도 8호 회원으로 등록했다.

## 2025 파이워크 참여 기관

